

#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및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김세루\*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 A Study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Pre-Service Childhood Teach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Se-Ru K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wangj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G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하위요인인 자기정서, 타인정서, 정서활용, 정서조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과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낙관전태도, 분노조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예비유아교사에게 필요한 개인적 자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To this end, 112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attending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located in the G were surveye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one-way ANOVA and Scheffe post-tes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according to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sub-factors. Second, according to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silience and sub-factors. These results will serve as basic data to explore various ways to improve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o enhance the personal qualities required for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 Words**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Pre-service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사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달시켜나간다고 한다[1]. 이는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할 때 결정하고 판단

할 때 교사 자신이 지닌 가치관이나 신념이 깔려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교사 자신이 알아차림으로써 교원의 전문성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2].

교사의 교수행동은 자신의 교수에 대해 가지는 신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는

이 연구는 2021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Ru Kim(Gwangju Univ.)

Email: srkim@gwangju.ac.kr

Received November 19, 2021

Revised December 07, 2021

Accepted December 18, 2021

대부분 Bandura의 자아효능감 이론에 기초한다 [3]. 자아효능감을 교사에게 적용한 교수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숙달을 하고 좋은 결과를 산출해 낼 수 있다고 믿는 믿음과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수효능감은 교사 준비기간인 대학 재학기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될 수 있다 [4].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향후 유아교사로서의 자리매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5].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수효능감의 중요도를 인식하고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6-8]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교수불안, 사회정서 등이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에 대한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내적이고 심리적인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교수효능감이 교사 개인의 심리적인 변인이 교사의 역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유아교사의 개인적 특성 중 하나인 정서지능은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조절 및 활용하는 능력이다[9]. 유아교사는 교육장면에서 유아들과 보다 많은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 자신의 정서지능을 바르게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조절하며 관리하는 것은 교사로서 직전교육에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유아들을 지도하고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긍정적 및 부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다.

한편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고 자신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감을 찾아가는 교사는 교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와 같은 위협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 [10]으로 정의된다. 교사의 정서상태와 효능감을 살펴본 연구[11], 회복탄력성의 정도와 교수효능

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12]를 비추어 봤을 때 교수효능감이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교사의 개인적 자질인 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고 더불어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 즉 자기이해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 1.2 연구 문제

첫째,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어떠한가?

둘째,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어떠한가?

## 2. 본 론

###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3-4학년 110명을 임의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 정서지능, 회복탄력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앞서 예비유아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 한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5부를 제외한 총 105부를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교수효능감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Enochs와 Riggs[13]가 개발한 도구를 조부경, 백은주, 서소영[14]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비유아교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문항을 축소하였고 수정한 내용은 유아교육전문가 2인으로부터 적절성을 검토 받은 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개인적 교수효능감(9문항)과 일반적 교수효능감(9문항)

총 18문항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 정정희[15]에 의하면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을 검증할 필요성이 언급된 바 본 연구에서도 빈도분석 결과를 가장 높은 정도를 상(33.3%), 중간정도를 중(33.3%), 가장 낮을 때를 하(33.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교수효능감 Cronbach's  $\alpha$ =.82, 개인적 교수효능감 Cronbach's  $\alpha$ =.80, 일반적 교수효능감 Cronbach's  $\alpha$ =.86으로 나타났다.

### 2.2.2 정서지능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Wong & Law[16]의 정서지능 척도(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강영숙[17]이 번역하여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용한 검사도구를 조혜진, 김수연[18]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은 정서인식(자기 정서인식, 타인 정서 인식), 정서활용, 정서조절의 4개의 하위범주,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방법은 예비유아교사가 문항을 읽고 스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정서지능 Cronbach's  $\alpha$ =.81, 하위요인인 자기정서인식 Cronbach's  $\alpha$ =.84, 타인정서인식 Cronbach's  $\alpha$ =.80, 정서활용 Cronbach's  $\alpha$ =.75, 정서조절 Cronbach's  $\alpha$ =.80으로 나타났다.

### 2.2.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검사도구는 Klohnen에 의해 개발되고 타당화된 CPI(C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척도를 최수빈[19]이 수정·보완한 것을 토대로 이승희[20]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은 자신감, 대인관계,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의 4개 하위범주,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방법은 예비유아교사가 문항을 읽고 스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회복탄력성 Cronbach's  $\alpha$ =.84, 하위요인인 자신감 Cronbach's  $\alpha$ =.81, 대인관계 Cronbach's  $\alpha$ =.83, 낙관적 태도 Cronbach's  $\alpha$ =.81, 분노조절 Cronbach's  $\alpha$ =.86으로 나타났다.

### 2.3 연구 절차

본 연구목적의 타당성, 설문지의 문항이해도 및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예비유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설문지는 적용상의 어려움이 없었고 설문시간은 적절하였으며 문항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예비유아교사에게 총 1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110부를 회수하였다. 그 중 응답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 불충분하게 기록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하여 최종 연구대상은 예비유아교사 105명(95.5%)으로 하였다.

### 2.4 자료분석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회복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수효능감 수준은 빈도분석 결과 상, 중, 하 각각 33.3% 비율로 수준을 나누었다.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 회복탄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 수

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F=27.63, p<.001$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전체 정서지능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 중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자기정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8.29, p<.001$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자기정서’에서는 상위집단간, 중위집단간,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자기정서’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정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5.80, p<.001$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타인정서’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 중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타인정서’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활용’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17.64, p<.001$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정서활용’에서는 상위집단간, 중위집단간,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활용’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6.05, p<.01$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정서조절’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 중위집단과 하위집단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조절’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1]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Table 1] Emotional intellig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N	M	SD	F	Scheffe
self-emotion	upper	31	4.39	.47	18.29***	lower<middle<upper
	middle	41	4.07	.42		
	lower	33	3.70	.50		
	subtotal	105	4.051	.53		
others emotion	upper	31	4.25	.55	15.80***	lower<upper<middle
	middle	41	3.76	.35		
	lower	33	3.80	.25		
	subtotal	105	3.92	.45		
emotional use	upper	31	4.30	.59	17.64***	lower<middle<upper
	middle	41	3.84	.55		
	lower	33	3.49	.49		
	subtotal	105	3.86	.63		
emotional regulation	upper	31	4.05	.49	6.05**	lower<upper<middle
	middle	41	3.59	.75		
	lower	33	3.52	.72		
	subtotal	105	3.70	.70		
Total	upper	31	4.25	.32	27.63***	lower<upper<middle
	middle	41	3.81	.33		
	lower	33	3.63	.37		
	subtotal	105	3.88	.42		

\*\* $p<.01$ , \*\*\* $p<.001$

### 3.2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F=7.94, p<.01$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전체 회복탄력

성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 중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4.34, p<.05$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자신감’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4.63, p<.05$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대인관계’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 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5.50, p<.001$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낙관적 태도’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낙관적 태도’는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분노조절’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5.69, p<.01$ ).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한 결과, ‘분노조절’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분노조절’은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  
**[Table 2] Resilience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ccording to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Resilience	The level of teaching efficacy	N	M	SD	F	Scheffe
confidence	upper	31	4.49	.63	4.34*	lower<upper
	middle	41	4.11	.68		
	lower	33	4.00	.79		
	subtotal	105	1.18	.72		
interpersonal	upper	31	4.24	.64	4.63*	lower<upper
	middle	41	3.97	.79		
	lower	33	3.68	.78		
	subtotal	105	3.96	.77		
optimistic attitude	upper	31	4.77	.33	5.50**	lower<upper
	middle	41	4.48	.54		
	lower	33	4.36	.60		
	subtotal	105	4.53	.53		
anger control	upper	31	4.74	.36	5.69**	lower<upper
	middle	41	4.51	.65		
	lower	33	4.20	.81		
	subtotal	105	4.48	.68		
Total	upper	31	4.52	.30	7.94**	lower<upper lower<middle
	middle	41	4.21	.52		
	lower	33	4.03	.61		
	subtotal	105	4.24	.53		

\* $p<.05$ , \*\* $p<.0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및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자기정서, 타인정서, 정서 활용, 정서조절 모두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예비유아교사가 생각하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정서지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1-23]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사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조절, 표현하는 능력을 더 발휘하기 때문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무엇보다 교수효능감과 정서지능의 관계[24]를 보면 특히 자기 정서를 인식하고 그에 기초한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고 실행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능력에 자긍심을 느끼고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될 것이라 사료된다.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 중 경험하게 되는 교수 경험은 이론과 실재를 연계하여 실천하는 기회가 되며 이를 통해 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심리적·신체적·지적인 면에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정서가 요구된다[25]. 따라서 교사의 역할수행을 잘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조절, 표현하는 능력을 더 발휘하도록 교과 및 비교과에 정서관련 내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낙관적 태도, 분노조절 모두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예비유아교사 생각하는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회복탄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수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26-28]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아교사의 개인적 교수효능감은 교수실제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교수행위에 있어 보다 더 열정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다[29].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은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현직 유아교사가 되었을 때 유아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것이며 이는 회복탄력성의 변인인 자신감과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모든 인간에게 필수적인 능력이지만 특히 교사에게 더욱 강조되는 능력이다[30].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판단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이 높은

교수효능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탄력성 중 낙관적인 태도, 분노조절과 관련있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과 다양한 변인의 관계가 보고되고 있다[31].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없다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행동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32] 교수효능감을 높이고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는 탐색이 요구된다. 특히, 교사양성기관과 유아교육현장에서는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참관수업 등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이 많은 성취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회복탄력성을 살펴본 연구결과는 교사가 교직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비유아교사에게 현장적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제공하며 스트레스와 소진에 대한 연구를 새로운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과 관련하여 개인 내적요인인 정서지능과 회복탄력성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가 인식한 교수효능감, 정서지능, 회복탄력성을 살펴봄으로써 교사로서 지녀야 하는 자질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예비유아교사의 개인적 자질 함양 및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와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수효능감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회복탄력성의 변인만을 분석하였으나 추후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활용하였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례수가 제한적이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K. Sternberg, "Working with identities—promoting student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University of Helsinki, Research Report*, pp321, 2011.
- [2] B-K, Cho, E-J, Baik and Y-M, Go, "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aju: YangSeoWon, 2018.
- [3] J. Gorrell and Y-S. Hwang, 'A study of efficacy among preservice teachers in korea',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 Vol.28, no.2, pp.101-105, 1995.
- [4] H-S.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Teaching Efficacy and Problem-Solving Style -Focused on Future Teachers of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5, no.1, pp.533-544, 2011.
- [5] S-K. Yoo,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entoring practice program for professional improvement of preservice preschool teachers', *Ph. D Thesis, Pusan University*, 2010.
- [6] H-Y. Kang, H-A. Seo and S-J. Eom,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Anger-Expression and Ego-Resilience on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0, pp293-302, 2018.
- [7] S-M. Son, "The comparison of the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and mathematics teaching anxiety between elementary pre-service teachers and in-service teachers",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8.
- [8] E-J. Lee, "The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Ego-Resilience and Teacher-Efficacy of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on Their Teaching Aptitude and Personality", *Ph.D Thesis, Dong-A University*, 2018.
- [9] J. Mayer and P. Salovey,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New York: Basic Books, 1997.
- [10] E. Klohn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 Pers Psychol*, Vol.70, no.5, pp.1067-1079, 1996.
- [11] M. Zembylas, "Teaching with emotion: A postmodern enactment.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2005.
- [12] Z. Veselska, A. Geckowva, O. Orosova, B. Gajdosova, J. van Dijk and S. Reijneveld, 'Self-esteem and resilience: The connection with risky behavior among adolescents', *J of Addict behav*, Vol34, pp287-291, 2009.
- [13] L. Enchos and I. Riggs, 'Further development of an elementary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A preservice elementary scale',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Vol.90, no.8, pp.694-706, 1990.
- [14] B-K. Cho, E-J. Baik and Y-M. Go, "Scholarships to help early childhood teachers develop" Seoul: YangSeoWon, 2001.
- [15] C-H. Chu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Mathematics Teaching-Efficacy and Children's Mathematical Thinking Skill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Vol6, no3, pp97-116, 2001.
- [16] C. Wong, C and K. Law,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pp243-274, 2002.
- [17] Y-S. Kang,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personality traits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teacher",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7.
- [18] H-J. Cho and S-Y. Kim,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and Their Burnou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Vol.16, no.6, pp.231-247, 2011.
- [19] S-B. Choi, "The relationships between

- resilience,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in early childhood teachers.”, *Master’s Thesis of woosuk University*, 2016.
- [20] S-H. Lee,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of Teachers on the Interpersonal Competency in Childhood Education Environment”,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2018.
- [21] M-M. Kim,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Teacher Efficacy, and Burnout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2014.
- [22] Y-Y. Cho, “Impact of Decision-Making Involve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eacher Efficacy in Early Childhood Teachers”, *Ph.D Thesis, CatholicKwandong University*, 2014.
- [23] E-J. Hwang,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eacher efficacy”, *Ph.D Thesis, Catholic University*, 2015.
- [24] S-J. Oh and E-J. Park,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tivations for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on the Self-Efficacy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3, no.2, pp.79-97, 2015.
- [25] J-H.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pecial School Teachers’ Burnout, Job Satisfaction, and Resilience”, *Ph.D Thesis, Dankuk University*, 2012.
- [26] J-H. Lee, H-W. Lee and J-K. Yoo, ‘The Analysis of the effects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ived emotional intelligence, their self-efficacy, and emotional labor in early childhood sett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5 no.2, pp.117-136, 2010.
- [27] Y-J. Chang, “The Effects of Teachers’ Emotional Quotient and Ego-resilience on the Teachers’ Efficacy”, *Master’s Thesis, Suwon University*, 2014.
- [28] J. Ciarrochi, J. Forgas and J.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n everyday life (2nd ed.)*”,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2005.
- [29] E. Deniz and H. Hulya, ‘Preschool teacher candidates’ self-efficacy beliefs regarding science teaching lesson and opinions about science’, *Elementary Education Online*, Vol.7, no.2, pp.456-467, 2008.
- [30] K-S. Chung and E-A. Choi, ‘Influence of child care teachers’ interpersonal job stress and social support from peers on awareness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8, no.3, pp.23-48, 2019.
- [31] J-E. Kwon, “The relation of ego-resilience, parent and peer attachment, and problem-solving”, *Master’s Thesis, Ehwa University*, 2002.
- [32] A. Bandur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 Company, 1997.